

# 목포시, 새로운 시도로 매력가꾸기시동

### 평화광장서 춤추는 바다분수+무대공연+불꽃쇼 '유명 문학인 배출 자부심' 전국 최초 문학박람회

목포시가 새로운 컨셉의 행사로 매력을 가꾸는데 시동을 걸었다.

민선7기 목포시는 대형 행사로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대외로 존재감을 넓혀 나가고 있다. 2019년 국가행사인 제1회 설의 날 기념행사와 제1회 전라남도 혁신박람회를 잇따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목포항구축제 등 주요행사를 취소하면서 '잠시 멈춤' 상태였지만 올해는 2개의 신규 행사로 다시 시동을 걸 계획이다. '2021 목포해상판타지쇼(가칭, 이하 판타지쇼)'와 '목포문학박람회'가 그것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에는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있다는 인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고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판타지쇼는 평화광장 앞바다에 설치된 춤추는 바다분수를 중심으로 특화된 관광브랜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바다분수쇼에 다채로운 공연과 불꽃쇼를 더해 목포를 상징하는 관광콘텐츠로 키운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바다분수의 역동성, 공연의 서정성,

불꽃쇼의 화려함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판타지쇼다.

시는 이를 위해 평화광장 앞 바다 위에 해상무대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해상무대는 490㎡ 규모이며, 부잔교를 통해 평화광장 데크와 연결된다.

판타지쇼는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천억원이 투입되는 관광거점도시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광거점도시사업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관광분야 최대 역점사업으로 올해 판타지쇼에는 13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해상무대 설치가 마무리된 후인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문 예술단체 등의 정기공연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진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나 정상 운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대면 운영도 준비할 방침이다.

판타지쇼가 올해 일정의 종반부를 향하는 10월에는 목포문학박람회가 목포 가을의 예술성을 더한다.

문학박람회는 목포시의 이른바 '3+1' 전략에서 '1'인 문화예술에서 예비문화도시사업과 함께 올해 핵심 사



업이다. '3+1'은 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3대 전략산업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를 육성하는 전략이다. 지난해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목포의 미래전략은 기존 3대전략산업에서 문화예술까지 확장됐다.

문학박람회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의 거성(巨星)들이 태어나거나 성장한 도시라는 목포만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기획된 행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학이 주제인 박람회다.

시는 10월초 목포문학관을 비롯해 원도심과 평화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문학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행사 준비를 위해 문학박람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종식 시장은 "지난해는 관광객 1

천만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어렵게 이루지 못했다"면서 "올해도 관광이 정상 회복될지는 미지수지만 관광에 대한 집중력을 이어가겠다. 판타지쇼 등 관광거점도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관광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학박람회는 예비문화도시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목포 문화예술의 브랜드가치를 빛낼 행사다.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례없는 시도인 문학박람회가 문학을 기초로 한 행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암군, 전 군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준비 '총력'

영암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하여 박종필 부군수를 단장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총괄팀, 대상자관리팀, 백신수급팀, 접종기관운영팀, 이상반응관리팀의 5개 실무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추진단은 상황총괄, 백신 수급관리, 위탁의료기관 현장점검, 접종센터 운영, 관내 예방접종 홍보, 이상반응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사회, 영암한국병원, 영암소방서, 영암경찰서 등 7개 기관 9명의 위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하여 안전한 백신접종 체계 마련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2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 생활자를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며, 정부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영암군은 대규모 접종, 거리두기, 교통의 편의성을 고려해 접종센터를 영암 실내체육관에 지정하였고,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25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접종센터에서는 공급량이 많은 모더나와 화이자, 위탁의료기관에서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반월·박지도 '피플섬' 대한민국대표관광 100선 선정



제로 주민들과 함께 '피플섬'을 조성했다.

섬에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군락지와 풀풀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라색 섬

'신안 피플섬'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1~2022년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다.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이면서 동시에 행정안전부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으로 선정되었던 "피플섬"은 지난해 8월 폐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10만명을 거느리고 있는 홍콩의 유명 여행 잡지인 'U magazine'에 최근 핫한 여행지로 소개되기도 했다.

안좌면 반월도·박지도와 두리마을은 2007년 피플교부터 지금까지 205억원을 들여 보라색을 주

로 컨셉을 정하고 목교와 해안 산책로의 라벤더·자목련·수국, 마을 지붕, 작은 창고의 벽, 앞치마와 식기 및 커피잔까지 보라색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최초 섬 자체를 컬러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은 2019~2020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지자체 추천 관광지, 최대 방문 관광지 중 선별한 198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관광학계와 여행업계, 여행기자·작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이다.

신안=이덕주기자

# 영광군 "매주 수요일은 실내 소독의 날"

### 코로나19 종료시까지 공공기관·사업체·가정 등 참여



'실내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매주 수요일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유관기관, 가정 등 전 군민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이며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손잡이와 계단 난간, 전화기 등을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역수칙과 예방지침 및 소독 방법과 주

영광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일상생활 속 소독의 생활화로 코로나19 예방 및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전 군민 일체

의사항 등을 전파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집, 내 가게, 공동체 공간에 자체 방역활동을 실천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소독약품이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은 보건소 및 각 읍·면에서 수시로 소독약품 회색약을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영광청년회의소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읍·면 자율방역단 등으로 더욱 촘촘한 방역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감각심 고취와 방역 활동의 마중물 역할이 되고자 한다.

윤정희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철통 방역을 최우선으로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역공동체 회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무안군,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확대 지원

무안군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1월 28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9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해체처리비로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44만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지원), 200㎡이하 비주택은 전액 지원하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250동으로 슬레이트 해체처리 240동(주택 225동, 비주택 15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이다.

이는 작년 대비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 지붕개량을 원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안=이기성 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